



# 월간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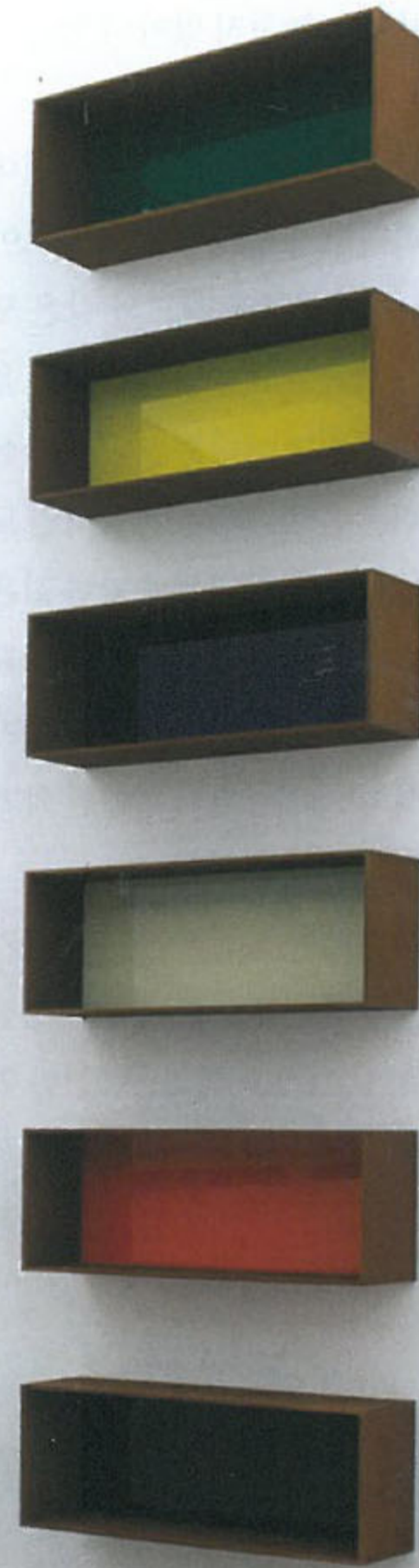


2014 12  
www.monthlyart.com

# DONALD JUDD

20세기 미술의 거장 도날드 저드(Donald Judd)의 개인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다. 도날드 저드는 1960년대 초부터 1994년 타계할 때까지 전통적인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재료 및 기술, 형태, 반복과 색채 등을 엄격하게 탐구해 회화도 조각도 아닌 오브제를 제작하고 '특정한 사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제〉(1991)를 비롯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작가의 입체작품 총 13점을 만날 수 있었다.

사진 · 조영하



##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수하다

정은영 || 한국교원대 교수

도날드 저드(Donald Judd)의 국내 개인전이 열렸다. 1991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전시의 첫인상은 '저드의 미니멀아트가 바야흐로 '클래식 모던'이 되었구나'로 요약된다. 이는 단지 도날드 저드라는 이름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올해는 그가 작고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해다), 그의 작업이 지난 '클래식한' 원리가 현재의 동시대미술을 배경으로 하여 비로소 확실하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본 단위인 모듈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리듬감 있게 변주하는 단순한 구성, 재료의 본래적인 재질과 속성에 어떠한 자의적 표현이나 사적인 감정도 더하지 않은 절제된 태

도에서 우리는 고전적인 모더니즘의 진면목을 확인한다.

그러나 '클래식 모던'을 단순히 세련되고 편안한 조형미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저드뿐 아니라 미니멀리즘의 핵심을 간과하는 것이다. 1960년대 초 뉴욕에서 등장한 미니멀아트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래(古來)의 질문과 갈수록 첨예해지는 현대미술의 난제(難題)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예술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언'과 같은 이른바 '끝내기' 담론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니어쩌면 바로 그로 인하여, '지금 여기 우리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

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클래식 모던’의 표면을 지탱하고 있는 저드의 이면(裏面), 미니멀리즘의 중핵(中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미니멀리즘이 겪은 역사적인 부침(浮沈)은 1960년대 이후 현대 미술의 이론과 현장에서 드러난 아이러니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 미니멀아트는 마이클 프리드와 같은 모더니즘 이론가들로부터 그 단순한 사물성이 모더니즘의 순수성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을 앞세운 신표현주의 회화가 유행했을 때에는 그 단순한 형식성이 억압적인 모더니즘의 온상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미니멀 작업에서 출발한 젊은 작가들이 개념미술이나 프로세스아트 혹은 대지미술로 외연을 확장하여 그 내적인 유연성을 실험할 때, 페미니즘 미술가와 이론가들에게 금속 박스와 강철판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된 차가운 권력의 상징으로 고착되어 파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순적인 반응은 미니멀리즘 자체의 복합적인 위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정점에서 그 형식을 사용하여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내파(內破)한 역사적인 접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회고하건대 모더니즘의 형식 속에 탈(脫)모더니즘의 맹아를 품고 있던 미니멀아트는 모더니즘

과 탈모더니즘을 잇는 통로에서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열릴 수 있는 문과 흡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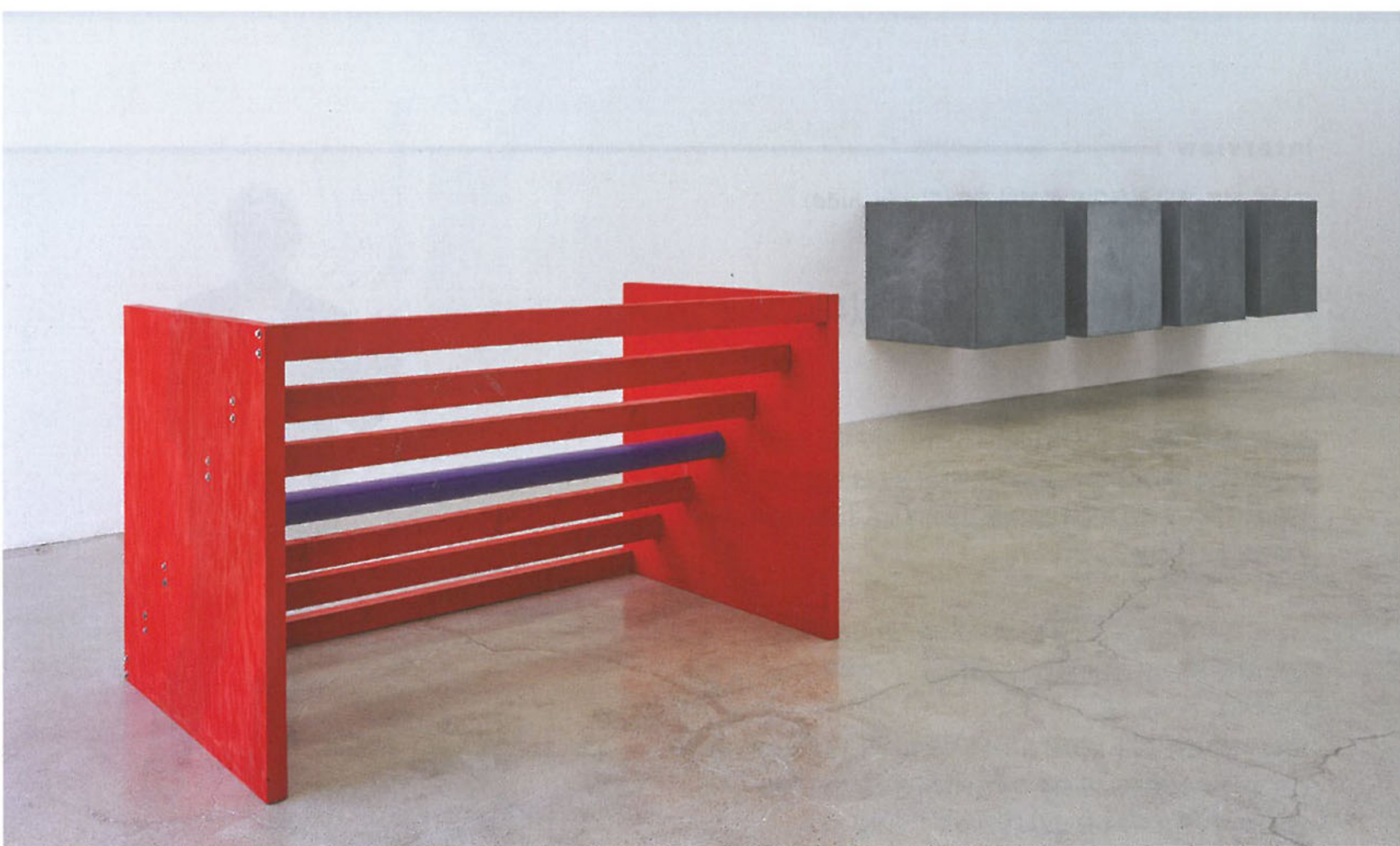
따라서 저드의 사물들, 예컨대 매끈하게 처리된 알루미늄 판이나 맑은 순색의 플렉시글라스, 아연 도금한 강철 박스나 대형 합판으로 만들어진 입방체에서 전통적인 조각도, 그것이 해체된 설치도 아닌, ‘명료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구조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명료하지만 알 수 없는’ 구조물들은 상이한 방향으로 열릴 수 있는 하나의 문이다. 단순한 구조와 절제된 구성에 방점을 찍는 이는 ‘적을수록 많다’는 모더니즘의 격률을 되새길 것이고, 회화도 조각도 아닌 입방체가 벽에 걸려 있는 상황에 방점을 찍는 이는 그 사물들의 ‘기이한 위상(位相)’에 주목할 것이다. 30여 년에 걸친 저드 작업의 핵심적인 작품들을 한자리에 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 당신은 어느 쪽으로 문을 열 것인가.

###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편이다.

저드는 이 ‘알 수 없는’ 구조물들을 ‘특수한 사물들(specific objects)’이라 불렀다. 미니멀리즘의 필독서라 여겨지는 저드의 비평문 〈특수한 사물들〉(1965)은 바로 이 “회화도 조각도 아닌 것(neither painting nor sculpture)”을 상찬하는 문장으로 시작된다.<sup>1</sup> 한때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구조물들을 지칭하는 데에 ‘알 수

〈무제〉(왼쪽) 나무 91.5×152.4×152.4cm 1989





〈무제〉(왼쪽) 나무 알루미늄에 채색 121.9×210.8×121.9cm 1988 (1963년 작품 재 제작)

있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초기 저드를 대표하는 밝은 선홍색(cadmium red light)의 목재 구조물을 '신발 걸이(shoe rack)'라고 부르거나 내부가 드러난 코르텐 강철 박스가 층층이 쌓인 연속 구조물을 '스택(stack)'이라 칭하는 등, '알 수 없는' 것들에 익숙한 명칭을 붙여 대상을 규정하는 일종의 '개념적인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이다.

'특수한 사물'은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드의 대답이다. 어찌 보면 그는 '예술작품'이라는 용어를 '특수한 사물'이라는 구문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예술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용사로 대체하고, '작품'이라는 위계적인 존재를 '사물'이라는 비위계적인 차원으로 환치한 것이다.

특수한 것은 특정하고(particular) 분명하며(distinct) 개별적(singular)이다. 특수와 개별, 이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일차적인 존재방식이며, 따라서 '특수한 사물들'은 사실상 모든 존재자를 일컫는 말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특수와 개별을 주어진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일정한 개념에 적용하여 보편과 일반에 귀속시킨다. 보편과 일반이 관념의 영역이라면 특수와 개별은 존재의 영역이다. 하지만 보편 관념은 추상될 뿐 오직 개별 존재만이 살아지고(lived) 체험된다. 저드가 개별을 보편 속에 포섭하는 일체의 개념을 거부하는 이유다.<sup>2</sup>

"존재하는 것들[만]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들의 편

이다. 여기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동등하고 단지 존재할 뿐. 가치나 관심은 우연한 것에 불과하다."<sup>3</sup>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저드의 화법은 단도직입적인 '직설법'이다. 어떠한 은유나 상징에도 의존하지 않는 즉물적인 사태(事態) 속에서 저드의 '특수한 사물들'이 무엇인가 말을 건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수하다'는 것이리라. 저드의 말대로, 여기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야말로 그 어떤 추론이나 연역도 필요치 않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

#### 주

1 Donald Judd, 〈Specific Objects〉, 《Arts Yearbook 8》, 1965, pp.74~84. 수많은 작품을 거론한 이 글에서 저드는 정작 자신의 작업은 언급하지 않았고 비평문 끝에 "내가 아니라 편집자가 내 작품의 사진을 삽입하였다"라고 천연하며 비평가 저드와 미술가 저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그가 자신의 작품을 회화도 조각도 아닌 '특수한 사물'로 보았음은 확실하다.

2 저드가 미니멀아트라는 용어를 거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용어의 부적절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미니멀리즘 대신 '맥시멀리즘(Maxim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의 작업이 더 효과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거부한 것은 개별 작가들의 차이를 무효화하는 단체 명칭, 즉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개념적인 용어였다는 뜻이다.

3 Donald Judd, 〈Black, White, and Gray〉, 《Arts Magazine》, Vol.38, No.6, March 1964, pp.36~38.